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종양

논문제목 신세포암에서 골전이 환자의 임상적 치료의 결과

영문제목 **The clinical outcomes of the treatment of bone metastasis in renal cell carcinoma**

발 표 자 정원주

책임저자 박일형

저 자 정원주, 김준영, 이창하, 박일형

기 관 명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 교실

**서론 :** 신세포암은 처음 진단을 받을 당시 25-57%에서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며 그 중 골전이된 경우가 전체의 25%정도이다. 이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, 불행하게도 International TMN staging system에 따르면 골전이 환자는 4기로 만족할 외과적 치료는 없다. 이에 본 연구는 후향연구를 통해 신세포암의 골전이 환자를 단독 골전이 군과 다발 골전이 군으로 비교하여 치료 후 생존율 및 종양학적 결과를 비교하여 더 나은 치료방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. .

**재료 및 방법 :** 신세포암은 처음 진단을 받을 당시 25-57%에서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며 그 중 골전이된 경우가 전체의 25%정도이다. 이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, 불행하게도 International TMN staging system에 따르면 골전이 환자는 4기로 만족할 외과적 치료는 없다. 이에 본 연구는 후향연구를 통해 신세포암의 골전이 환자를 단독 골전이 군과 다발 골전이 군으로 비교하여 치료 후 생존율 및 종양학적 결과를 비교하여 더 나은 치료방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. .

**결과 :** 최종 추시시 단독 골전이 군 총 20례 중 지속적 무병생존(continuously disease free, CDF) 1례, 무병생존(no evidence of disease, NED) 8례, 유병생존(alive with disease, AWD) 5례, 질병으로 인한 사망(died of disease, DOD) 6례였다. 다발 골전이 군 총 17례 중 지속적 무병생존 0례, 무병생존 0례, 유병생존 5례, 질병으로 인한 사망 12례였다. 두 군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( $p=0.013$ ) 5년 생존율은 단독 골전이 군에서 74.7%, 다발 골전이 군에서 25.7%이며 Kaplan-Meier방법을 통해 생존곡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.( $p=0.006$ )

**결론 :** 신세포암에서 단독 골전이 군과 다발 골전이 군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4.7%, 25.7%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였고( $p=0.006$ ) 종양학적 결과 비교시( $p=0.013$ ) 단독 골전이 군이 다발 골전이 군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. 따라서 신장적출술 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골전이를 조기 발견 및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. 또한 다발 골전이라도 환자의 상태 고려하여 보존적 방법보다 최대한 골전이 조직을 제거하고 골시멘트로 메운 후 내고정술 및 인공구조물 대체술등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동통 완화 및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다.

#### **acknowledgment :**

신세포암, 골전이, 생존율